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본 1980년대 ‘민중’*

— 『동아일보』의 용례를 중심으로 —

허수**

목차

1. 머리말
 2. ‘민중’ 사용의 급증
 3. ‘민중’의 논의 맥락
 4. 논의 흐름의 두 갈래
 5. 맺음말
-

이 글은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사용된 ‘민중’이라는 단어의 논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아일보』 20년(1975~1994)의 기사를 ‘민중’ 공기에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먼저 전체적인 네트워크구조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민중’의 논의 맥락은 크게 ‘사회운동’, ‘제도정치’, ‘변혁이론’, ‘공연예술’의 네 가지 의미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5년 단위로 논의 맥락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민중’의 급증과 관련하여 1980년에 일어난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사건’이 1980년대 후반에 ‘사회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이러한 ‘사회운동’이 1990년대 전반에는 민중당 설립이라는 ‘제도정치’로 연결되었다.

둘째, ‘사회운동’ 및 ‘제도정치’ 영역과 달리 ‘공연예술’ 영역의 핵심 공기어인 ‘극단’의 동향은 정치·운동 정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 지속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민중’이 정치화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 이후의 정치화 경향 아래에서도 존속했던, 일상적·문화적 논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논문분야 한국현대사, 개념사

주 제 어 공기어 네트워크, 민중, 『동아일보』

* 이 연구는 서울대학교 신입교수 연구정착금으로 지원되는 연구비에 의하여 수행되었음.

** 서울대학교 인문대학 국사학과 부교수, crctaper@snu.ac.kr

1. 머리말

전근대사회에서 민(民)은 통치의 객체에 머물렀으나, 근대사회에서 민은 통치의 주체로 부각된다. 다수의 국가에서 이러한 민의 지위 변동은 전근대 사회에서 진행된 민의 성장을 배경으로 하지만, 직접적으로는 서구에서 형성된 ‘인민 주권’의 이념이나 대의제 정치제도의 도입과 맞물려 이루어졌다. 한국의 경우도 예외는 아니어서 19세기 후반의 문호개방 이래 청일전쟁과 러일전쟁, 식민 지배, 분단의 격동기를 겪으면서도 ‘다수에 의한 지배’라는 민주주의 정치원리가 정착되어 왔다.

그런데 ‘주권을 가진, 통치의 주체’를 뜻하는 ‘주권적 주체’가 근대적 민의 본질을 이룬다 해도 그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양상은 단일하지 않다. 한편에서 근대적 민은 제도화된 절차에 따라 주기적으로 자신의 주권을 행사할 뿐, 평소에는 국가라는 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 활동한다. 근대적 민이 가진 이러한 측면을 ‘정치적 주체’라고 부를 수 있다면, 이와 구별되는 다른 한 측면은 ‘운동적 주체’라 할 수 있다. 운동적 주체는 제도적 절차를 통한 주권 행사가 불가능하거나 허구화될 때, 누적된 불만을 가진 민이 급격한 제도적 개혁을 위해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등장한다.

1980년대에 한국사회를 풍미한 민중론의 다수는 민중을 ‘역사 발전의 주체’, ‘변혁 주체’ 등으로 파악하였고, 이러한 논리 위에서 다수의 사람을 호명하여 정치적 민주화의 대열로 나아가게 했다. 이 점에서 1980년대 민중론이 주목한 민중은 상기 범주의 운동적 주체에 해당한다. 당시 민중을 호명한 자들은 대개 지식인과 학생들이었는데, 그들의 민중관, 민중에 대한 규정, 상호간 논쟁 등은 이 시기의 민중 개념이 가진 특성을 파악하는 데 중심 주제가 되어 왔다.

그런데 선행 연구들은 당시의 민중 개념이 가졌던 ‘운동적 주체’로서의 측면을 주요 논자별로 정리하고 그러한 민중 인식의 성립과정을 밝히는 성과를 거두었으나,¹⁾ 관찰의 초점을 ‘운동적 주체’, 특히 ‘역사 발전 및 변혁 주체’에

고정시킴으로써 당시의 민중론이 가진 다양한 의미를 간과한 감이 있다. 이러한 제약을 낳은 이유는, 선행 연구의 분석 대상이 지식인·학생의 민중론에 한정되었고 연구자의 관심이 민중론의 내용 중에서도 지식인·학생들이 민중을 어떻게 인식하고 정의하였는가에 집중된 결과, 당대의 민중 개념에서 가장 첨단적인 의미가 부각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1980년대 민중론의 의미를 종합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는 개념 규정과 관련된 첨단적 의미 외에, 실제 문맥에서 민중이라는 단어가 사용된 용례를 폭넓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논의 구도 위에서 이 글은 1980년대 민중론을 폭넓게 탐구하기 위한 방편으로 새로운 접근방법을 시도할 것이다. 첫째, 분석 대상으로 언론, 특히 신문 자료를 활용하고자 한다. 신문 자료에 실린 기사도 지식층의 인식에서 자유롭다고 할 수는 없으나, 논설기사나 기획기사뿐 아니라 사건·사고 및 현실 보도기사 등 다양한 장르와 분야의 글을 망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민중에 관한 좀 더 폭넓은 논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이 글에서는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분석 대상을 『동아일보』로 제한하였다.²⁾ 당초에는 관찰 시기를 1980년대(1980~1989)로 계획했지만, ‘민중’ 논의의 변화를 1980년대 이전 및 이후와 연관시켜 파악할 필요를 느껴 분석 범위를 1975~1994년의 20년으로 확장하였다.³⁾

1) 1970~1980년대 민중 개념에 관한 개괄적 이해와 개념 사용을 둘러싼 사회 상황 파악에는 다음 연구가 유용하다. 이남희(2015), 『민중 만들기 :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유리·이경희 역, 후마니타스; 이세영, 2006, 「민중 개념의 계보화」, 김경일·김동춘·김정인 외, 『우리 안의 보편성 : 학문 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한울; 장상철, 2007, 「1970년대 ‘민중’ 개념의 재등장 : 사회과학계와 민중문학, 민중신학에서의 논의」, 『경제와 사회』 제74호 (여름호).

2) 여러 일간신문 중에서 『동아일보』를 선택한 가장 직접적인 이유는 본문이 전산화되어 있고 접근성이 쉬워서 효율적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개념사 연구방법을 정초한 독일의 역사학자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d Koselleck, 1923~2006)에 따르면 개념과 단어는 구별된다. 민중 개념은 ‘민중’이라는 단어로도 표현되지만, 상황이나 문맥·화자에 따라서는 ‘대중’이나 다른 단어, 또는 구(句)로도 표기된다(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50~57쪽). 이 글에서는 민

둘째, 접근방법으로는 '민중'에 대한 지식인·학생들의 개념 규정이나 정의가 아니라 '민중'이 논의되는 맥락에 주목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방법은 이 글에서 선택한 신문 자료가 엄밀한 학문적 개념 정의를 담고 있기보다는 보도적·설명적 기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과 깊이 관련된다. 구체적으로는 '민중'의 공기어(共起語), 즉 문장 속에서 '민중'이 사용될 때 이 단어와 일정한 범위 내에서 함께 사용된 단어들의 면면을 검토함으로써 그 '민중'의 논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한다. 물론 이러한 접근법이 설득력을 가지려면 민중 개념의 직접적 의미를 탐구하는 방법보다는 훨씬 많은 용례가 필요할 것이다. 『동아일보』는 본문 기사가 디지털화되어 있어서 일정한 기법으로 가공을 하면 공기어를 활용하여 '민중'의 논의 맥락을 파악할 수 있다. 방대한 '민중' 용례와 그 공기어들의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네트워크분석' 기법을 사용하였다.⁴⁾

2. '민중' 사용의 급증

1) '민중'과 '민중' 공기어의 분포

'민중'의 공기어란, 문장 속에 '민중'이 사용될 때 이 단어와 일정한 문맥에서 함께 사용되는 단어를 가리킨다. 『동아일보』 기사에서 '민중'의 공기어를 추출한 과정은 다음과 같다.

① 『동아일보』 민중 코퍼스(corpus) 확보⁵⁾

중을 개념으로 가리킬 때에는 그냥 민중이라고 표현하고, 기표로서의 그것을 표현할 때에는 따옴표를 사용하여 '민중'이라고 써서 구분한다.

4) 네트워크분석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이 글 제3장 제1절에서 서술하고자 한다.

5) 말뭉치라고도 한다. "자연언어 연구를 위해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언어의 표본을 추출한 집합

- ② 용례색인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민중’의 공기어 후보를 추출⁶⁾
 ③ 동형이의어(同形異義語) 제외, 표기법 통일 등을 통해 공기어 선별

①은 『동아일보』 20년 기사에서 검색을 통해 ‘민중’이 포함된 문장을 추출한 뒤 개념 연구에 적절한 기준으로 형태분석을 가하여 얻은 결과물이다.⁷⁾ 이때 민중항쟁과 같은 ‘민중’의 합성어는 ‘민중’과 ‘항쟁’으로 쪼개고, 후자인 ‘항쟁’은 ‘민중’의 공기어로 간주한다.⁸⁾ 이 자료로부터 획득한 ‘민중’ 용례는 ‘민중’과 ‘민중’ 관련 합성어를 합하여 1만 2,828개이다. 이 용례들은 『동아일보』 6,922개 기사에 걸쳐 있다.

②에서는 ①에서 획득한 ‘민중’의 위치에서 좌우 15형태의 범위에 있는 대상, 즉 38만 4,840개의 ‘형태’들을 검토하여,⁹⁾ 이 중에서 주로 명사와 고유명

이다. 컴퓨터의 발달로 말뭉치분석이 용이해졌으며 분석의 정확성을 위해 자연언어를 형태소 분석하는 경우가 많다(「말뭉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7%90%EB%AD%89%EC%B9%98>, 검색 : 2016. 12. 8).

- 6) 용례색인 프로그램으로는 워드스미스 툴(WordSmith Tools) 6.0을 사용하였다.
 7) 『동아일보』의 ‘민중’ 용례를 얻기 위해 접속한 인터넷 검색 사이트는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newslibrary.naver.com)이다. ‘형태분석’의 기준은 국어학에서 주로 수행하는 형태소 단위까지 나는 것은 아니며, 개념 연구에 적절한 정도까지 나누었다. 구체적으로는 최근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에서 구축한 ‘한림과학원 개념사코퍼스’의 규칙을 따랐다. 형태분석과 같은 조작을 거쳐 코퍼스를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컴퓨터 프로그램이 기계적으로 읽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용례색인 프로그램은 좌우의 띄어쓰기를 경계로 이루어진 글자를 만나면 융통성 없이 그 자체를 하나의 단위로 인식한다. 예를 들어 ‘민중은’이라는 글자와 ‘민중이라는’ 글자를 서로 다른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민중’의 논의 맥락을 탐구하는 이 글의 입장에서 본다면, 두 글자는 무의미한 조사 ‘은’과 ‘이만’ 다를 뿐 둘 다 ‘민중’을 가리킨다는 점에서 동일하다. 그러므로 이러한 두 단어를 동일한 것으로 파악하려는 인간의 요구와, 방대한 데이터를 빠른 속도로 읽고 처리하는 컴퓨터 연산 능력을 결합하기 위하여 형태분석을 실시한다고 할 수 있다.
 8) 문장 속에서 ‘민중’의 공기어로 인정되는 단어와 ‘민중’ 합성어의 일부를 이루는 단어 사이에는, ‘민중’과의 결합도 면에서 중요한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이 글에서는 분석에서 고려할 변수의 개수를 줄이기 위하여 그러한 차이는 무시하였다.
 9) 1만 2,828(‘민중’ 용례 수)×30(전후 15형태)=38만 4,840(형태). ‘15형태’는 ‘15어절’과 다르다. 여기에서는 형태분석한 자료를 대상으로 하므로 ‘어절’ 대신 ‘형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다. 이 ‘형태’에는 단어, 문장부호, 단어성분 등이 모두 포함된다. 공기어 추출에 필요한 ‘일정한

사 중심으로 공기어 후보를 가려내었다.¹⁰⁾ 이후 ③의 선별 작업을 거쳐 최종적으로 1만 4,983종, 11만 8,676개의 공기어를 획득하였다. '민중'과 그 공기어, 민중을 포함하는 신문기사 수, 『동아일보』 전체 기사 분량 등의 연도별 양상을 집계하면 <표 1>과 같다.

<표 1> 민중, 공기어, 기사 등의 연도별 빈도 양상(단위 : 개)

연도	민중 수 (a)	공기어 수 (b)	b/a	기사 수	총기사	총어절
1975	421	2,997	7.1	192	37,508	5,128,058
1976	195	1,513	7.8	125	32,185	4,592,285
1977	156	1,090	7.0	109	35,071	4,525,156
1978	142	1,101	7.8	104	33,597	4,672,584
1979	336	2,891	8.6	171	33,795	4,880,648
1980	459	3,866	8.4	207	32,584	4,759,707
1981	235	1,913	8.1	152	44,203	6,546,273
1982	356	2,842	8.0	207	40,729	6,230,766
1983	278	2,111	7.6	160	37,243	5,778,257
1984	401	3,147	7.8	217	35,503	4,873,622

문맥을 좌우 15형태로 설정한 것은 다소 자의적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영어 알파벳은 공기어를 추출할 때 그 범위를 좌우 5단어로 많이 이용하지만, 한글은 문장구조가 상이하고 또 '민중' 코퍼스가 한글 문장을 형태분석한 것임을 고려하여 15형태 정도로 정했다. 다음 표는 검색어 '민중'과 그 좌우 15형태의 한 사례를 보여 준다. 여기에서는 30개의 '형태' 중에서 '무시, 인플레이, 실업, 사회, 불안, 독재, 정권, 인내'의 8개 단어가 '민중'의 공기어로 선별된다.

연번	용례 코드	L15	L14	L13	L12	L11	L10	L9	L8	L7	L6	L5	L4	L3	L2	L1	0
1	A-0001	무시	되	고	인플레	와	실업	이	라는	사회	불안	에	허덕이	고	있	는	민중
		0	R1	R2	R3	R4	R5	R6	R7	R8	R9	R10	R11	R12	R13	R14	R15
		민중	들	이	독재	정권	에	대하	여서	더	이상	인내	하	르	수	없	는

- 10) 형용사도 의미 파악에 중요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명사와 고유명사가 의미를 담고 있는 정도가 높기 때문에 두 품사 중심으로 제한하였다. '민중'은 검색어이므로 공기어 후보 범위에서 '민중'을 제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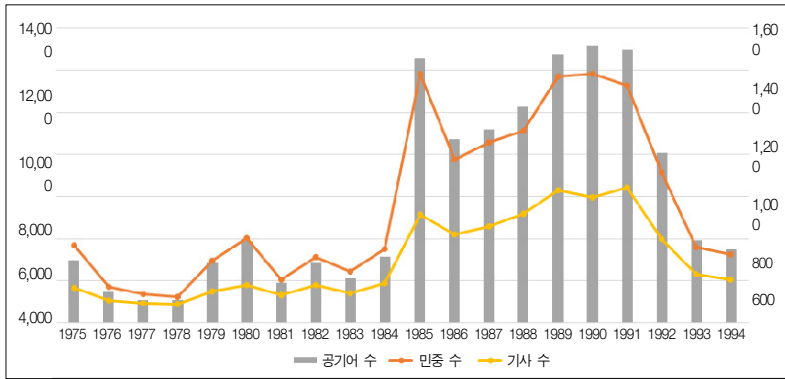
1985	1,350	12,594	9.3	586	28,879	4,433,744
1986	888	8,735	9.8	479	30,575	4,802,350
1987	981	9,201	9.4	524	31,712	5,003,148
1988	1,045	10,265	9.8	595	42,695	6,470,531
1989	1,337	12,769	9.6	719	43,677	6,566,672
1990	1,352	13,166	9.7	683	57,199	8,280,695
1991	1,291	12,980	10.1	734	59,666	8,448,945
1992	820	8,088	9.9	455	61,313	8,159,180
1993	413	3,907	9.5	266	65,122	8,286,429
1994	372	3,500	9.4	237	67,334	8,402,815
합계	12,828	118,676	9.3	6,922	850,590	120,841,865
평균	641	5,934	9.3	346	42,530	6,042,093

* 총기사와 총어절은 『동아일보』 기사의 연도별 전체 분량을 나타낸 것이다.¹¹⁾

〈표 1〉에 따라 ‘민중’과 공기어, 기사 수의 동향을 그래프로 표시한 것이 다음의 〈그림 1〉이다. 예상대로 기사 수의 증감 폭보다 ‘민중’ 수와 공기어 수의 증감 폭이 큰 가운데 삼자의 연도별 변화가 긴밀하게 연동된다. 언뜻 보아도 이러한 빈도의 전후기 양상이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1985~1992년까지의 8년간은 연도별 빈도가 빈도 평균을 상회하는 데 비해 그 외의 연도에서는 평균 이하이다.

〈그림 1〉의 연도별 동향을 보면 공기어 수의 변동은 ‘민중’ 수의 변동과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민중’의 좌우 ‘15형태’ 범위 내에서 공기어를 추출하였으므로 당연히 예상되는 결과이다. 다만 〈표 1〉과 〈그림 1〉을 볼 때, ‘민중’ 수에 대한 공기어 수의 비율(b/a)이 다른 연도보다 1985~1992년에 높게 나타난 것은 이 시기에 ‘민중운동’, ‘민중당’ 등의 합성어들이 많이 사용되

11) 『동아일보』 기사의 총기사 수, 총어절 수에 관한 정보는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의 김일환 교수가 제공하였다.



〈그림 1〉 민중, 공기어, 기사 수의 연도별 동향

* y축의 좌측 눈금값은 공기어 수를, 우측 눈금값은 민중 수 및 기사 수를 나타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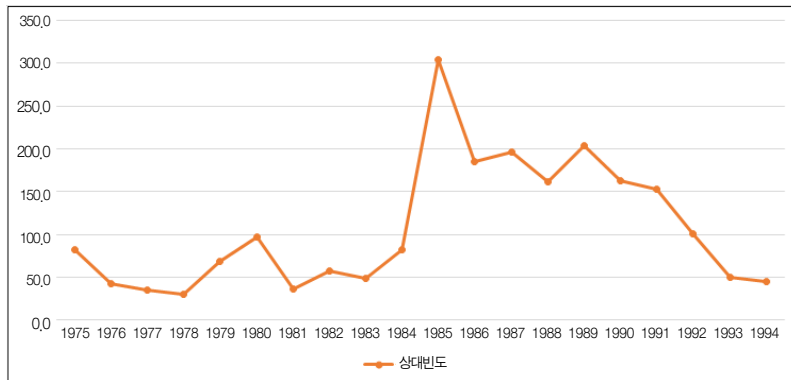
었기 때문에 생각된다.¹²⁾ 또한 전체적으로 기사 수의 증감 폭에 비하여 ‘민중’ 수의 증감 폭이 큰데, 이는 ‘민중’ 용례가 증가하는 기간에는 1개의 기사에서 평균적으로 사용되는 ‘민중’ 용례 수가 이전에 비해 늘어나기 때문일 것이다. 그런데 이 수치는 1년 단위의 평균 수치이므로 실제로는 ‘민중’을 집중적으로 사용하는 기사 몇 개가 작성되어 전체 평균을 끌어올렸을 수 있다. 다음 절에서는 이러한 추정들을 자료를 통해 실증해 보기로 한다.

2) 운동적 · 정치적 배경

이 절에서는 1980년대 중반 이후 ‘민중’과 ‘민중’ 공기어가 증가하고 지속된 원인을 살펴보고자 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민중’ 공기어 수의 변화는 ‘민중’ 수의 변화와 긴밀하게 연동되므로 우선 연도별 ‘민중’ 수의 실질적 변

12) 이 글의 방법론과 관련하여 ‘민중운동’은 ‘민중’과 ‘운동’으로 쪼개어 ‘운동’을 ‘민중’의 공기어로 간주하였으므로, ‘민중’의 바로 오른쪽 ‘형태’에는 공기어에 선별되는 품사인 명사가 오게 된다. 그러므로 만약 이러한 ‘민중’의 합성어가 1985년부터 나타난다면, 그에 따라 이 시기부터 ‘민중’ 수의 증가율보다 공기어 수의 증가율이 상대적으로 높을 가능성이 크다.

화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표 1>과 <그림 1>의 수치는 연도별 실제 변화를 파악하기에는 불충분하다. <표 1>의 총기사 수와 총어절 수를 보면 1970년대에 비해 1990년대가 매우 높은데, 이는 증면이나 다른 사정으로 신문에 수록된 정보량이 증가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연도별 실질적인 변동 양상을 살펴보기 위해서는 <표 1>에서 제시된 ‘민중’ 수, 즉 ‘민중’의 ‘절대빈도’로부터 ‘상대빈도’를 산출해야 한다. 연도별로 총어절 수에서 ‘민중’ 수가 차지하는 비율을 산출하여 얻은 ‘상대빈도’의 동향은 <그림 2>와 같다.



<그림 2> ‘민중’ 수의 연도별 동향(상대빈도)

* 연도별 값은 <표 1>을 참조하여 (민중 수/ 총어절)×1,000,000¹³⁾과 같이 산출하였다.

<그림 2>의 동향을 보면 ‘민중’ 수는 실질적으로 1985년이 가장 높았고 1984~1985년 사이의 증가 폭이 가장 컸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1985년에 이처럼 ‘민중’이 폭증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후 ‘민중’ 수는 소폭 하락하지만 증가세는 1991년까지 지속되므로, 어쩌면 1985년의 증가 원인은 20년 전체 차원에서 ‘민중’ 수의 증가 원인과 관계가 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이 절에서

13) 이때 곱해 준 ‘1,000,000’이라는 값은 소수점 자리를 줄이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y축에 기입된 수치 자체는 커다란 의미가 없으며 연도별 변동 양상이 중요하다.

관찰하는 '민중' 공기어의 변동은 '민중'의 동향에 좌우되므로 1985년에 '민중'이 증가한 배경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다.

1985년 기사에서 '민중'의 사용이 급증한 원인을 알아보려고 그해의 기사 중 '민중'을 10개 이상 포함한 기사 16개를 살펴보았다.¹⁴⁾ 민중문학과 민중문화에 관한 기사 6개, 삼민투(三民鬪) 검찰 수사 기사 4개,¹⁵⁾ 서적·유인물 압수수색 기사 1개, 민중교육 관련 기사 1개, 기타 4개였다. 이처럼 1985년에는 민중문학·민중문화 관련 기사가 수적으로 가장 많고, 특정 기사에서 민중이 집중적으로 언급되는 경우도 그 이전이나 이후에 비하여 높다.¹⁶⁾

그러나 민중문학·민중문화 관련 기사는 그 이전에도 어느 정도의 비중을 보여 왔기 때문에,¹⁷⁾ 이 분야의 기사를 '민중'의 급증 요인으로 단정하기 어렵다. 이에 주목하게 되는 것은 삼민투 관련 기사이다. 그해 5월 23일부터 26일까지 삼민투 산하 조직에 소속된 서울 지역 5개 대학교 학생 73명이 서울 미문화원을 점거·농성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¹⁸⁾ 사건 직후부터 삼민투 관련 기사는 『동아일보』를 비롯하여 국내외 언론에 크게 보도되었다. 상기

14) 이하에서는 구체적인 '민중' 용례나 신문기사, '민중' 공기어 등의 빈도를 언급할 때 주로 절대빈도를 이용한다.

15) 삼민투는 '민족통일·민주쟁취·민중해방을 위한 투쟁위원회'로, 1985년 4월에 결성된 각 대학교 학생운동 연합세력인 '전국학생총연합(全學聯)' 산하에 편성된 공개 투쟁 조직이었다. "전학련-삼민투 체제 아래에서 학생운동은 학교 안 문제보다 '광주 문제', '미국 문제', '헌법 개정 문제' 등 정치적·사회적 문제에 집중했다"(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868쪽).

16) 1985년 기사 현황을 기사별 '민중'의 빈도와 함께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民族文學은 民衆文學의 바탕」(1. 31)이 10회, 「民族문학의 밤」: 金芝河 씨 「民衆文學……」 강연 "生動하는 自由가 民衆의 참삶"(3. 7)이 18회, 「민중문학」(3. 9)이 25회, 「文化界 "일부 文化藝術 具" 투쟁道具化" 느낌」全國藝總大會 李文公 次事(7. 20)가 13회, 「民衆文化」의 評價(7. 22)가 11회, 「民衆文化 오늘의 實狀」李文公발언」계기로 본 현황과 전망(7. 22)이 36회이다.

17) 1985년에는 6개 기사의 평균이 18회이며 최댓값은 36회이다. 1984년에는 4개 기사의 평균이 14회이며 최댓값은 27회이다.

18)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앞의 책, 869쪽. 이에 관한 좀 더 상세한 내용은 다음 연구가 참고할 만하다. 김민호, 1988,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역사비평』 제3호, 101~105쪽.

16개 자료에서 삼민투 관련 기사는 검찰의 수사 중간발표가 나온 7~8월에 집중되었다.¹⁹⁾ 특히 「검찰, 삼민투위 수사 중간발표」라는 기사는 민중을 57회나 거론하여 그해 기사 1개당 민중 용례의 최고치를 기록하였다. 기사의 규모가 컸던 이유도 있지만, 그 사안이 '민중'과 밀접하게 관련되었기 때문이다. 이상을 종합하면 1985년에 '민중'이 급증한 원인은 삼민투 관련 사건이 발생하여 기사화되었던 데에서 찾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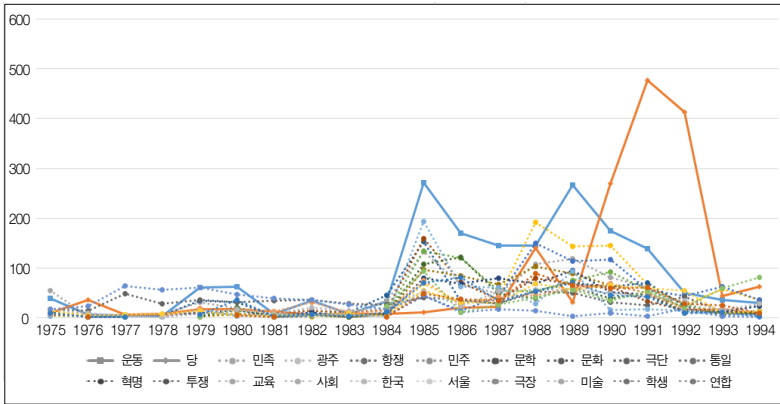
한편 약 1만 5천 종의 공기어 중에서 빈도 순위 상위 20개의 모습은 <표 2>와 같고, 이들의 연도별 빈도 동향은 <그림 3>과 같다.

<표 2> '민중'의 공기어 중 상위 빈도 20개(단위: 개)

순위	공기어	합계	순위	공기어	합계
1	운동	1,675	11	혁명	589
2	당	1,608	12	투쟁	544
3	민족	828	13	교육	533
4	광주	798	14	사회	518
5	항쟁	684	15	한국	518
6	민주	680	16	서울	517
7	문학	652	17	극장	501
8	문화	625	18	미술	494
9	극단	617	19	학생	486
10	통일	617	20	연합	458

'운동'이 1985년과 1989년에서 봉우리를 이룬 것은 <그림 2>의 절대빈도 전체 동향과 유사하다. 그러나 여타 공기어는 반드시 그렇진 않다. 특히 1·2순위인 '운동'과 '당'의 차이가 두드러진다. '당'은 1985년에 상승률이 상

19) 「三民闘委학생 56명 拘束」, 『동아일보』 1985. 7. 18; 「檢察 三民闘委수사 중간발표(全文)」, 『동아일보』 1985. 7. 18; 「保安法 적용 被疑者 혐의사실」, 『동아일보』 1985. 7. 18; 「「깃발」 등 學園街油印物 검찰수사 발표문」, 『동아일보』 1985. 8. 6.



〈그림 3〉 '민중' 공기어의 연도별 양상(상위 빈도 20개)

대적으로 낮았으나 1990년에 급증하여 1991년에 최고점에 달하였다. 다음 〈표 3〉을 참고하면 1991년의 급증세는 '민중당'이라는 단어의 출현에 따른 것이다. 민중당은 재야운동권의 일부 인사들이 1990년 11월 창당한 것으로, 제도정치권 내부에 혁신정당을 건설하자는 취지를 가졌다. 그러나 1992년 3월 제14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1명의 당선자도 내지 못하여 정당 등록이 취소되었다. '당'의 연도별 빈도 동향은 이러한 사정을 반영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표 3〉 민중의 출현 문맥에서 공기어 '당'의 위치(단위 : 개)

연도 \ 위치	L02	L01	Center	R01	R02	합계
1990	5	3	민중	194	5	207
1991	2	1	민중	384	3	390
1992	5	4	민중	295	2	306
합계	12	8	-	873	10	903

* 'R01'은 '민중(center)'의 오른쪽 첫 번째 '형태'에 해당한다.

3. ‘민중’의 논의 맥락

1) ‘민중’ 공기어 네트워크분석

여기에서 말하는 네트워크분석은 사회학에서 발전한 ‘사회연결망분석(social network analysis)’을 가리키는데, ‘개인 및 집단 간의 관계를 노드(node, 점)와 링크(link, 선)로써 모델링하여 그 위상구조, 확산과 진화과정을 계량적으로 분석하는 방법론’이다.²⁰⁾ 이러한 네트워크분석의 대상은 사람과 사물의 관계 뿐 아니라 사물 간의 관계에까지 확장되고 있다. 대표적인 경우가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이다. 이 분석은 논문과 그 키워드 간의 연결관계를 나타내는 자료에서 키워드와 키워드 사이의 네트워크를 산출한 뒤, 이를 분석하여 특정 범위 내의 연구 동향을 파악하는 데 자주 사용된다. 이 글에서는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을 ‘민중’의 논의 맥락 파악에 응용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에서 다루는 ‘논문-키워드’ 관계를 이 글에서는 “‘민중’이 사용된 문맥-‘민중’의 공기어” 관계로 대체한다.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공기어를 ‘특정 단어와 일정한 문맥에서 동시에 출현하는 단어’라고 할 때, 이 글의 착안점은 특정 단어를 기준으로 좌우의 일정한 범위에 해당하는 ‘일정한 문맥’을 ‘미니(mini) 논문’으로 간주하며, 그 공간에 출현하는 공기어를 그 논문의 ‘키워드’로 보는 것이다. 그러므로 키워드 네트워크분석으로 ‘키워드-키워드’ 관계를 이끌어내듯 이 글에서는 ‘민중’의 ‘공기어-공기어’ 관계를 도출하여 그 결과물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때 실제로 존재하는 정보는 “‘민중’의 문맥-공기어”뿐인데 이 정보로부터 ‘공기어-공기어’ 관계를 산출할 수 있는가라는 의문을 가질 수 있다. 물론 네트워크분석에서는 이상의 자료로부터 공기어와 공기어 간의 직접적인 관계(connection)를 도출할 수는 없다. 그 대신 등장 패턴의 유사도(similarity)라

20) 사이람,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분석 : 기본 과정』(교육용 자료집), 6쪽 참고.

는 차원에서 공기어 간의 관계를 산출한다. 예컨대 공기어 a와 b가 각각 '민중 1'과 '민중 2'의 문맥에 동시에 출현했다고 가정하면, 공기어 a와 b는 '민중 3'의 문맥에만 출현한 공기어 c보다 서로 유사성이 높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이 유사도는 숫자의 형태로 산출되므로 공기어와 공기어의 관계를 시각화할 수 있다.

이런 분석방법은 필자가 그동안 진행해 온 계량적 연구와 비슷해 보이지만 뚜렷한 차이가 있다. 필자는 최근 몇 년 간 단어의 사용 빈도를 중심으로 그 의미를 파악하는 계량적 접근법을 사용하여 선행 연구에서 잘 드러나지 않은 단어의 의미를 규명하기도 했다.²¹⁾ 그러나 대개는 관찰의 초점을 핵심 단어와 그 공기어 간의 관계에 맞추었고 공기어와 공기어 간의 관계를 살펴 보지는 못했다. 그런데 핵심 단어와 그 공기어 간의 관계도 네트워크의 형태를 띤 하지만, 엄밀하게 말하자면 이때 도출된 공기어는 그 존재 자체가 핵심 단어를 전제로 추출된 것이므로 '핵심 단어-공기어'의 네트워크는 핵심 단어를 중심으로 그 공기어들이 방사형으로 연결된 '해바라기' 형태를 벗어나기 어렵다. 그 결과 공기어를 구성하는 다양한 단어들이 단지 핵심 단어와 연결되는 양상만 보여 줄 뿐이며, 단어들 상호 간의 관계에 관한 정보는 드러나지 않는다. 이 글에서 추구하는 공기어-공기어 관계가 중요한 이유는 이 양자의 관계가 핵심 단어, 여기에서는 '민중'의 논의 맥락을 파악하는 데 풍부한 정보를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럼 실제로 공기어-공기어의 관계를 도출해 보자. 공기어 선별과정을 통하여 우리는 이미 다음의 <표 4>와 같은 형태의 자료를 가지고 있다.

21) 허수, 2010a, 「식민지기 '집합적 주체'에 관한 개념사적 접근 : 『동아일보』 기사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23호 ; 허수, 2010b, 「1920~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대중' 인식」, 『역사와 현실』 제77호 ; 허수, 2014, 「어휘 연결망을 통해 본 '제국'의 의미 : '제국주의'와 '제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7집.

〈표 4〉 ‘민중’과 ‘민중’ 공기어

민중	공기어
00001	무시, 인플레이, 실업, 사회, 불안, 독재, 정권, 인쇄
00002	분개, 사건, 계기, 대중, 무지, 판단
00003	무시, 처사, 한국, 일원, 분개, 사건, 계기
.....
12828	시집, 노동, 새벽, 시, 문학, 관념성, 시인, 자신(自身), 실천적, 삶

* 왼쪽 칸은 모두 ‘민중’이지만 각각의 ‘민중’을 구별할 필요성이 있어서 00001부터 12828까지의 숫자로 표시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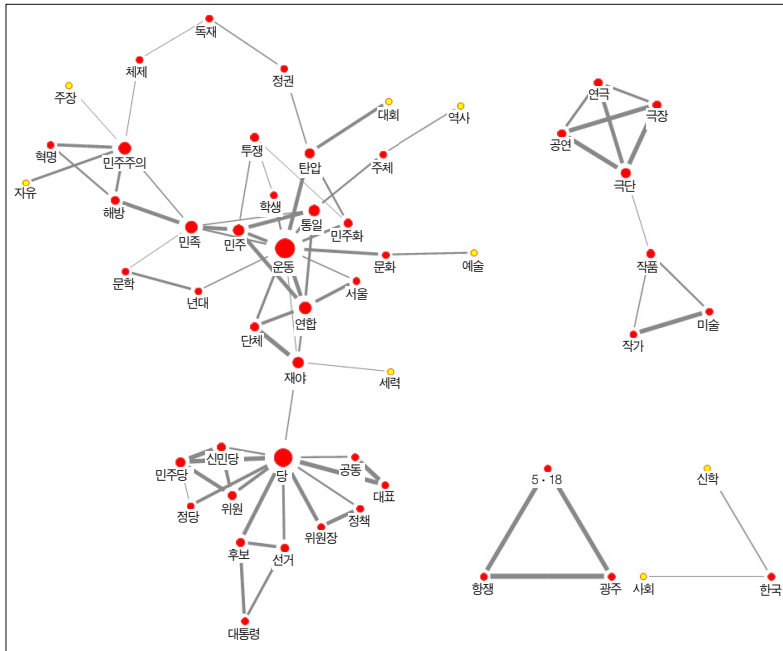
여기에서 ‘민중00001’의 공기어는 무시, 인플레이 등 8개이다. 양자의 관계는 ‘민중00001-무시’, ‘민중00001-인플레이’ 등 8개의 이항관계(binary relation)로도 표시할 수 있다. 민중 용례 1만 2,828개와 공기어 11만 8,676개를 이런 방식으로 연결하면 모두 11만 1,936개의 이항관계가 생긴다.²²⁾

‘민중00001-무시’의 관계는 ‘민중00001’과 ‘무시’라는 노드(node, 점)가 서로 연결된 형태로, 그 의미는 “첫 번째 민중 용례가 출현한 곳의 좌우 15형태 이내에 ‘무시’라는 단어가 사용되었다”이다. 이런 이항관계 정보를 네트워크분석 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면 ‘공기어-공기어’의 형태를 띤 네트워크로 바꿀 수 있다.²³⁾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이때 공기어와 공기어 사이의 관계는 ‘유사도’로 측정된다. 〈표 4〉에 국한할 경우, ‘분개’·‘사건’·‘계기’는 각각 민중00002와 민중00003에 모두 사용되었으므로 세 단어는 다른 단어보다 상호 간에 유사도가 높다. 반면 ‘인플레이’나 ‘시집’은 각각 민중00001과 민중12828에 따로 따로 한 번씩 출현하였으므로 두 단어 사이의 유사도는 상대적으로 낮다.

소프트웨어를 이용한 유사도 산출에서 필자가 선택한 공식(알고리즘)은 일반적으로 네트워크분석에서 많이 사용되는 ‘코사인 유사도(cosine similarity)’

22) 특정 ‘민중’, 예컨대 민중00001의 좌우 15형태 내에서 동일한 단어가 두 번 이상 출현할 때에는 중복을 제거하고 그중 하나만 공기어로 인정하였다.

23) 넷마이너(NetMiner) 4.0[개발자는 사이람(Cyram)]을 사용하였다.



〈그림 4〉 ‘민중’의 전체 논의 맥락(1975~1994)

이다.²⁴⁾ 그 결과 〈그림 4〉와 같은 네트워크를 얻었다.²⁵⁾

24) 코사인 유사도를 계산하는 공식은 다음과 같다. 물론 실제 작업에서는 이 공식을 '선택'하면 소프트웨어가 유사도값을 산출한다.

$$\text{similarity} = \cos(\theta) = \frac{A \bullet B}{\|A\| \|B\|} = \frac{\sum_{i=1}^n A_i \times B_i}{\sqrt{\sum_{i=1}^n (A_i)^2} \times \sqrt{\sum_{i=1}^n (B_i)^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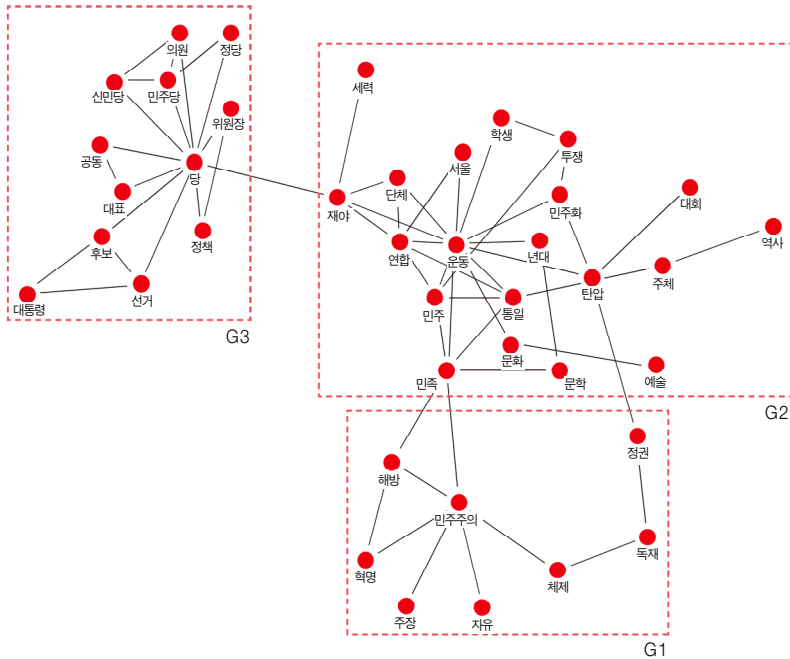
25) 실제 작업 흐름을 개관하면 다음과 같다. ① 데이터 가져오기 → ② 공기에 필터링(노드 필터링) → ③ 공기에 유사성 네트워크 생성 → ④ 셀프 루프(self loop) 제거 → ⑤ 임계값 설정 (링크 필터링) → ⑥ 구성집단(component) 분석 → ⑦ 커뮤니티 분석. 여기에서 ②와 ⑤의 필터링 작업은 생성된 네트워크 관계 중 그 연결 강도가 높은 상위 일정 비율을 남기고 나머지는 절삭하는 과정이다. 10만 개가 넘는 이항관계에서 출발하여 도출된 결과를 모두 네트워크로 표현하면 새까맣게 얹힌 실타래처럼 보여 네트워크의 특성을 파악하기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⑥과 ⑦에 대해서는 다음 절에서 언급할 것이다. 작업 흐름은 다음 자료를 참고하였다. 사이람,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분석: 2모드 네트워크분석 과정』

〈그림 4〉에서 크고 작은 점(노드)들은 ‘민중’의 공기어를 나타낸다. 어떤 공기어와 유사도가 높은 공기어가 ‘많이’ 있을수록, 즉 그 공기어와 연결되는 공기어 수가 많을수록, 그 공기어의 노드는 크게 표시된다. 노드를 연결하는 선(링크)은 두 공기어 간에 유사도가 있음을 표시한다. 이 선은 두 공기어가 동일한 문맥에 등장하는 경우가 많으면 많을수록 굵게 표시된다.

2) 사회운동 · 제도정치 · 변혁 이론 · 공연예술

네트워크 지도(map)에서 연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노드집단을 ‘구성집단(component)’이라고 하며, 그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을 ‘거대 구성집단(giant component)’이라고 부른다. 〈그림 4〉에서는 구성집단이 4개 있으며, 이 중 좌측에 있는 것이 거대 구성집단에 해당한다. 거대 구성집단에서 소속 노드들은 서로 이어져 있지만, 링크의 굵기에 차이가 있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실제 그들 간의 연결 정도에는 강약의 차이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노드 간 응집 정도에 따라 구성집단을 몇 개의 하부단위로 구분할 수 있는데, 그 구분된 각각을 ‘커뮤니티(community)’라고 부른다. 〈그림 5〉는 소프트웨어를 활용하여 거대 구성집단을 세 개의 커뮤니티로 구분한 모습이다. 〈그림 4〉와 〈그림 5〉를 함께 검토하면 거대 구성집단은 ‘운동’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당’을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 ‘민주주의’를 중심으로 한 커뮤니티로 구분된다. 한편 이 거대 구성집단과 별도로 ‘극단’이 중심이 된 구성집단과, ‘5·18-광주-항쟁’과 ‘한국-사회-신학’으로 연결된 소규모 구성집단이 분포해 있다.

이러한 네트워크 지도는 『동아일보』에서 20년에 걸쳐 사용된 ‘민중’의 논의 맥락을 시각적으로 보여 준다. 여기에는 〈표 2〉에서 살펴본 ‘민중’ 공기어의 상위 빈도 20개가 거의 대부분 포괄되어 있을 뿐 아니라 그들 간의 관계와 핵심 단어 등에 관한 정보도 담겨 있다.



〈그림 5〉 거대 구성집단의 주요 커뮤니티

* 이 지도는 커뮤니티분석 결과를 표시한 것이어서 노드의 굵기는 모두 동일하게 나타나 있다. 이곳의 G1과 G3은 각각 〈그림 4〉에서 표시된 거대 구성집단의 왼쪽 위와 아래 부분에 해당한다.

다음의 〈표 5〉는 위의 네트워크 지도에서 구분할 수 있는 네 영역(part)에 적절한 이름을 부여한 것이다.²⁶⁾ 핵심 단어와 여기에 연결된 인접 단어들을 포괄하고자 했다. 또한 영역별 핵심 단어를 ‘핵심 공기어’라 하고 그와 연결된 단어를 ‘인접 공기어’라 했다. 인접 공기어 칸에는 핵심 공기어와 연결된 정도가 높은 것에서 낮은 것 순서대로 배열하였다. 물론 핵심 공기어와 별도로 인접 공기어 상호 간에도 긴밀한 관계가 있다.

26) 거대 구성집단의 세 커뮤니티와 두 번째 크기를 가진 구성집단을 한꺼번에 가리키기 위해 편의상 ‘영역(part)’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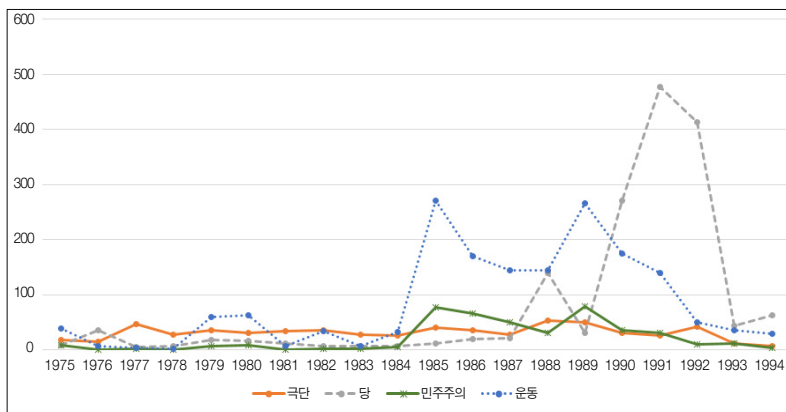
이외에 '5·18-광주-항쟁'처럼 자체적으로 강한 응집력을 보이는 구성집단도 있지만, 여타 공기어와 폭넓게 연결되지 않아서 별도의 영역으로 상정하지는 않았다.

〈표 5〉 '민중' 공기어 네트워크의 네 영역과 내부 구성

구분	영역 이름	핵심 공기어	인접 공기어
a	사회운동	운동	탄압, 연합/단체, 민주, 통일, 민족, 민주화, 문화, 학생/재야, 연대(年代), 서울
b	제도정치	당	민주당, 위원장, 대표/의원, 정책, 공동, 후보, 선거, 정당, 신민당/재야
c	변혁 이론	민주주의	해방, 혁명, 자유/민족, 주장, 체제
d	공연예술	극단	극장/공연/연극/작품

'민중' 공기어 네트워크는 '민중'의 공기어를 고립적으로 다루지 않고, 상호관계를 이루는 공기어를 함께 고찰함으로써 민중의 사용 문맥에 좀 더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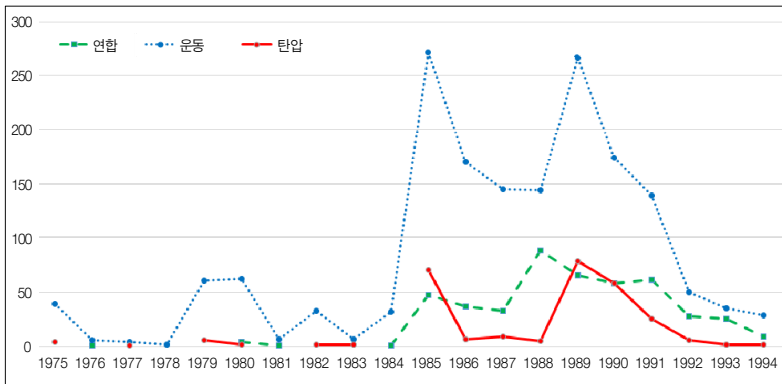
우선 〈표 2〉와 〈그림 3〉의 상위 빈도 20개와 달리 〈그림 6〉처럼 분석의 초점을 '운동', '당', '민주주의', '극단'에 맞추는 것이 가능해진다. 각 단어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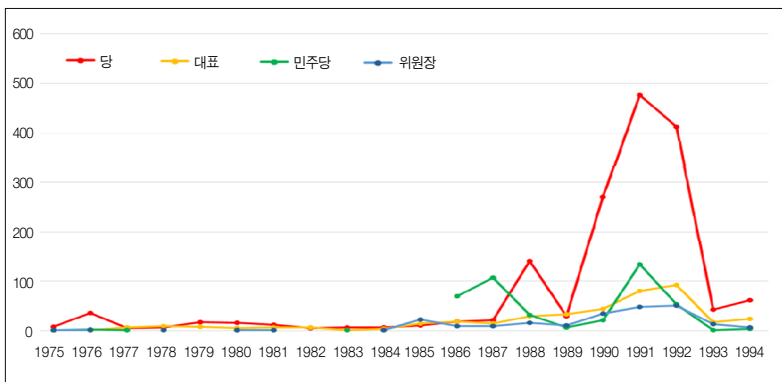
〈그림 6〉 주요 영역별 핵심 공기어의 연도별 빈도 동향

‘민중’ 논의의 네 영역에서 핵심 공기어임이 확인되었기 때문이다.

핵심 공기어의 대표성은 각 영역별 핵심 공기어와 그 인접 공기어의 연도별 빈도 동향을 살펴보면 재확인할 수 있다. <그림 7>과 <그림 8>처럼 ‘사회운동’과 ‘제도정치’ 영역을 대표하는 ‘운동-연합-탄압’과 ‘당-민주당-위원장-대표’의 단어들이 각각 연도별로 비슷한 증감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그림 7〉 ‘사회운동’ 영역 공기어 동향



〈그림 8〉 ‘제도정치’ 영역 공기어 동향

그렇다면 이와 같은 영역별 공기어군(群)은 ‘민중’의 논의 맥락 파악에 어떤 유용성을 줄까. 이를 위하여 사회운동 영역의 ‘운동-연합-탄압’이 ‘민중’의 공기어로 함께 사용되는 기사를 살펴보기로 한다. 세 단어 중 하나 이상이 사용되는 기사는 1,122개이며, 이 중에서 세 단어를 모두 포함하는 기사를 뽑아내면 <표 6>처럼 17개를 얻는다.

<표 6> ‘운동’, ‘연합’, ‘탄압’을 모두 포함하는 기사(단위: 개)

연번	기사코드	연도	운동	연합	탄압	합계
1	A-1929	1985	8	1	2	11
2	A-2094	1985	5	4	1	10
3	A-2350	1986	4	2	1	7
4	A-2641	1986	3	1	1	5
5	A-3596	1988	1	1	1	3
6	A-3867	1989	3	1	1	5
7	A-3871	1989	2	1	2	5
8	A-3918	1989	3	1	2	6
9	A-3974	1989	1	1	1	3
10	A-4116	1989	1	1	1	3
11	A-4162	1989	1	1	2	4
12	A-4373	1989	1	1	1	3
13	A-4391	1989	1	1	1	3
14	A-4410	1989	4	1	4	9
15	A-4470	1989	1	1	1	3
16	A-4644	1990	3	2	3	8
17	A-4894	1990	2	1	1	4

빈도도 높고 시기적으로도 앞서는 1985년의 두 기사(A-1929, A-2094)에서 공기어 출현 문맥을 발췌하면 다음과 같다. 해당 공기어는 필자가 진하게 표시하고 밑줄을 쳐서 강조하였다. 먼저 첫 번째 기사부터 살펴보자.

① 「保安法 적용 被疑者 혐의사실」²⁷⁾

金泰龍(김태룡 : 서울대 민중생존권쟁취투위원장. 사회 3년)

84년 9월 초 민병렬의 자취방에서 용공유인물인 「깃발 1호」를 가지고 세미나를 하면서 민병렬이 주장한 “현 정권의 본질은 미·일의 전진기지로서의 종속 파시즘이고, 물질 토대는 민중수탈과 미·일 독점자본에 기반을 둔 예속국가이므로 학생 운동의 주축은 정치투쟁에 두고 보조축은 민중지원 연대투쟁에 두어 함께 사회주의혁명으로 이끌어야 한다”라는 설명에 수긍하고…….

金萱柱(김원주 : 고려대 언론출판연합체. 불문학과 4년)

85년 6월 25일경 한국사회를 생산수단의 소유 상태에 따라 7대 계급으로 분류하고 “노동자, 반농, 도시빈민계급을 계급연합으로서의 혁명적 민중이라 규정하고, 자유민주주의는 부르주와지가 정치권력을 독점하는 체제로서 부정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일보전진』이라는 책자 4천 부를 제작하여 이를 고려대에 배포했음. …….

姜璡正(강기정 : 전남대삼민투위원장, 전기학과 4년)

85년 3월 27일 〈반외세, 반독재, 민족통일의 선봉에 서서〉라는 제목하에 “광주 항쟁은 미제국주의자를 거부하는 반제민족해방투쟁이었다”라는 내용의 표현물을 제작, 살포하고 85년 4월 8일 “한반도분단의 고착화를 피하고 한반도 민중을 탄압하는 제국주의 타도를 위한 선명한 싸움을 전개할 것이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제작, 살포했음.

이 기사는 공교롭게도 제2장에서 살펴본 삼민투 검찰 수사 중간발표 기사이다. 그런데 검출한 문맥은 동일하더라도 그 의미는 많이 다르다. 제2장에서는 ‘민중’이 급증한 원인이 삼민투 관련 기사라는 점을 파악한 것인 반면, 여기에서는 ‘민중’의 논의 맥락 중 ‘사회운동’ 영역의 주요 의미가 활성화된 지점을 포착한 것이다. 관찰의 초점도 기사 단위에서 문장과 구(句) 단위로 정밀해졌다. 우리는 ‘민중’의 논의 맥락을 논할 때 인용문 ①의 굵고 밑줄 친

27) 『동아일보』 1985. 7. 18, 1면

단어와 그 문맥이, 단지 그것이 속한 기사 차원이 아니라 『동아일보』 20년 기사 전체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음을 알 수 있게 되었다. 그렇지만 이러한 의미 부여가 타당하려면 한 가지 더 고려할 사항이 있다.

이 기사에서 ‘운동’은 ‘학생운동’의 일부로, ‘연대’는 민중지원 연대투쟁의 문맥 속에서 각각 사용되었다. ‘연합’은 ‘계급연합’의 일부로 사용되었으며 ‘계급연합’은 다시 ‘혁명적 민중’을 꾸미는 말로 사용되었다. ‘탄압’은 그 주체가 ‘미제국주의’이고 대상은 ‘민중’이었다.

그런데 ‘연합’의 사용과 관련하여 민중을 계급연합으로 언급하는 표현이 이념적으로는 선명할지 몰라도 당시의 『동아일보』 기사에서 얼마나 일반적이었는지 궁금하다. ‘민중’의 공기어 중 ‘연합’과 인접한 ‘형태’에 오는 단어를 <표 7>로 정리해 보았다.

<표 7> ‘연합’의 좌우 ‘형태’에 사용된 공기어(단위 : 개)

L03	L02	L01	Center	R01
민중 (2)	민중(108), 불교(29), 서울(29), 문화(20), 민주(9), 미술(8), 운동(8), 쟁취(7), 대학생(4), 단체(3), 보수(3), 진보(3), 당(2), 민주주의(2), 연합(2), 전국(2), 지역(2), 학생(2), 항쟁(2)	운동(137), 민중(46), 국민(44), 전국(15), 정치(13), 불교(12), 항쟁(12), 대(6), 민주(5), 청년(5), 광주(3), 단체(3), 교회(2), 빈민(2), 인천(2), 총학생회(2), 투쟁(2)	연합	회 (16)

* 괄호 안의 숫자는 출현 빈도이다. 2번 이상 사용된 단어만 나열하였다.

<표 7>에서 알 수 있듯이 ‘민중/ 운동/ 연합’이 가장 일반적인 결합 형태이며, 나머지도 대부분 운동조직이나 사회조직의 결합체와 관계가 깊다. 그러므로 조금 전에 살펴본 ‘계급연합’이라는 용례는 『동아일보』에서 매우 드문 경우라 할 수 있다. 이 점에서 ‘연합’의 일반적·대표적 용례로는 오히려 <표 6>의 두 번째 기사가 더 주목된다.

② 「許仁會 군 拘束」²⁸⁾

— 허인회, 고려대총학생회장 정외과 4년, 전학련삼민투위원장, 국민대토론회
마치고 교외시위 진출 시도하다가 정사복 경찰에게 검거—

서울대, 고려대, 연세대, 이화여대, 서강대, 성균관대, 덕성여대 등 서울시내 대
학생 1천여 명은 6일 오후 2시 45분경 고려대 강당에 모여 <학원법을 비롯한 민중
민주화운동 탄압에 대한 전국민시국대토론회>를 가졌다. ……토론회는 허인회 군
의 사회로 진행됐다. 경찰조사 결과 허군은 그동안 서울 도봉구 수유동 등 서울근교
변두리지역에 방을 얻어 공원으로 위장, 자취생활을 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한편
신민당 박찬종, 조순형 의원, 민주협 김병오 부간사장, 한광옥 대변인 등과 민중불
교운동연합회, 민주통일민중운동연합 등 재야인사 및 구속자 학부모 등 50여명이
이날 낮 1시 40분경 토론회에 참석하기 위해 고려대 정문 앞에 도착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들어가지 못했다.

여기에서는 ‘운동’과 ‘연합’이 인용문 ①보다 좀 더 일반적이고 전형적으로
사용되었다. ①의 ‘학생운동’과 ②의 ‘민중운동’은 별 차이가 없다 하더라도, 여
기에서 ‘연합’은 운동조직 명칭으로 사용되었다. <표 7>에 표시하지는 않았지만
‘운동-연합’이 동일 기사에서 함께 사용된 것은 1985년에 들어 처음이었다.

20년간의 동아일보 기사 전체에서 ‘민중’의 논의 맥락으로 사회운동 영역
이 가장 뚜렷하고, 이 영역에서 ‘운동-연합-탄압’의 관계가 가장 중요하였다.
이 점을 상기한다면, 세 단어가 처음으로 함께 쓰였을 뿐 아니라 용례 면에
서도 이후에 일반화된 것을 선취하였다는 점에서 기사 ②는 원형적 위상을
가진다. 더욱이 이 기사의 중심인물인 허인회는 삼민투위원장이었다. 삼민투
라는 점에서 이 기사는 기사 ①과 연결되며 두 기사 모두 1980년에 발생하
였다가 진압된 ‘광주항쟁’의 사회적 의제화(議題化)와 깊은 관련을 가졌다. 이
문제는 다음 장에서 다루기로 한다.

28) 『동아일보』 1985. 9. 7, 7면.

4. 논의 흐름의 두 갈래

1) 사건에서 운동으로, 운동에서 제도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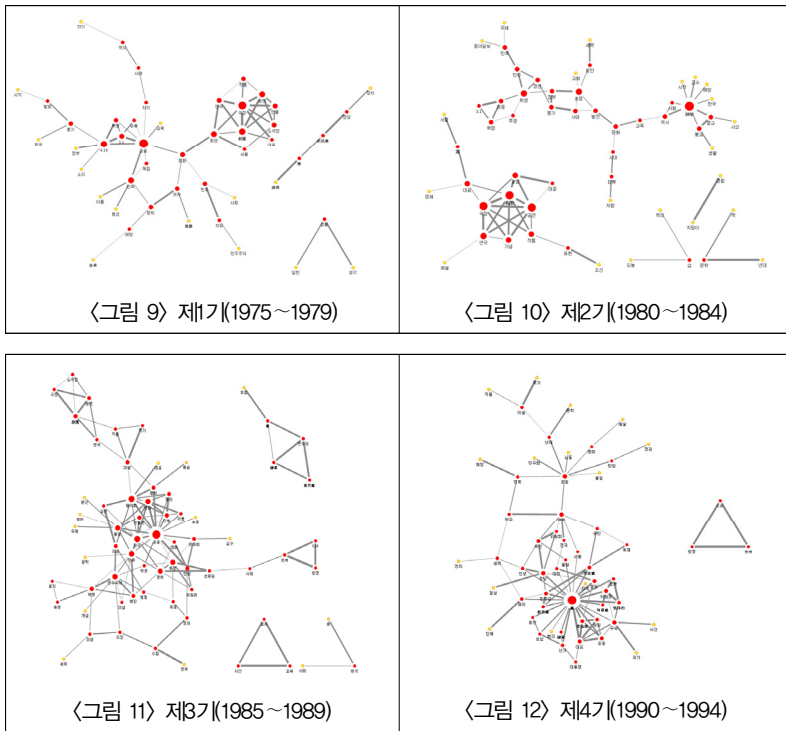
제3장에서는 〈그림 4〉의 네트워크 지도에서 출발하여 ‘사회운동’ 영역의 주요 공기어가 사용된 문맥을 살펴보았다. 그런데 〈그림 4〉는 20년 전체를 하나의 단위로 한 논의 맥락이라서 이것으로는 논의의 시기별 변화를 살펴보기 어렵다. 변화 양상을 살펴보기 위하여 시기별 네트워크를 산출할 필요가 있다.

여기에서는 편의상 20년을 5년씩 나누어 〈그림 9~12〉 4개의 네트워크 지도를 만들었다.²⁹⁾ 시기별 네트워크를 서로 비교할 때에는 노드 크기나 링크 굵기 등의 절대적인 값을 비교하는 것은 의미가 없고, 노드 및 링크의 우선 순위와 중요도가 시기별로 어떻게 변하는가라는 상대적 위치 파악이 더 중요하다.³⁰⁾ 그리고 네트워크에서도 우선적인 관찰 지점을 ‘거대 구성집단’의 구조에 맞출 필요가 있다. 이런 점을 감안하면서 이 절에서는 논의 맥락에서 높은 비중을 보이는 ‘사회운동’과 ‘제도정치’ 영역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29) 시기별 네트워크의 자세한 모습은 이 글의 마지막에 〈부표〉로 첨부하였다.

30) 그 이유는 전반기(제1~2기)와 후반기(제3~4기) 간의 공기어 개수 차이와 관련이 있다. 통상 네트워크분석에서는 효과적인 관찰을 위하여 빈도가 높은 일정 부분의 데이터를 취하고 나머지는 절삭(cut-off)한다. 절삭을 너무 많이 한 까닭에 그로 인해 산출된 노드 및 링크가 너무 적으면 네트워크가 양상해져서 그 특징을 파악하기 힘들고, 반대로 절삭을 적게 하여 노드 및 링크 수가 너무 많으면 네트워크가 복잡해져서 역시 특징을 파악하기 힘들게 된다. 그래서 연구자의 분석 목적에 맞게 적절한 네트워크 크기가 나올 수 있도록 절삭율을 조정한다. 이런 방법을 데이터 규모의 차이가 큰 두 집단의 네트워크를 비교할 경우에 적용하면, 두 집단에 동일한 절삭율을 적용하기보다는 각각의 집단에서 네트워크의 특징을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상이한 절삭율을 적용하여 네트워크의 형태를 비교하되, 상이한 네트워크 간의 노드와 링크 굵기 등을 비교하는 것은 삼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 글에서는 시기별로 네트워크구조의 상호 비교·파악이 용이하도록 시기별로 절삭 수준을 가변적으로 적용하였다. 물론 이 경우에 ‘민중’이 급증하는 후반기의 양상이 너무 맛있게 반영될 수 있으므로 그렇지 않도록 신경을 썼다. 이처럼 네 시기별 네트워크에서 해상도가 각각 상이하므로 시기별 비교에서는 노드나 링크의 절대 크기에 너무 구애받을 필요는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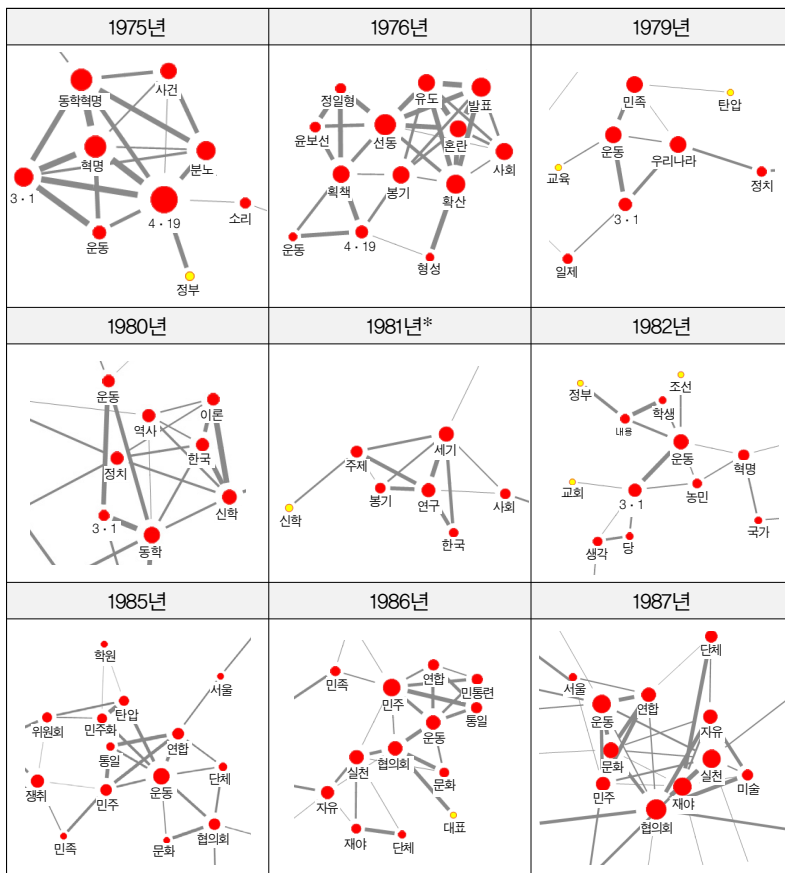
시기별 양상을 '민중'의 논의 맥락 중심으로 관찰하면, 제3기에는 왼쪽 중앙에 '운동' 등 '사회운동' 영역이, 제4기에는 중앙 아래쪽에 '당'을 비롯한 '제도정치' 영역이 단연 우세함을 알 수 있다. 1980년대 후반에 활성화된 민중운동의 성과 위에서 민중당이라는 진보정당의 창당이 이루어졌던 사실을 고려할 경우, 위의 두 영역은 역사적인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고 전체적으로 1980년대 '민중'의 증가를 주도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제1기와 제2기는 이와 달리 어느 한 영역의 우세가 없이 중심이 몇 개로 분산되어 있다. 즉 제1기의 경우 거대 구성집단이 왼쪽의 '사회운동' 영역과 오른쪽의 '공연예술' 영역으로 양분되었다. 제2기의 경우 왼쪽 아래에서

‘공연예술’ 영역이 주목할 만한 응집 양상을 보이며 별도의 구성집단을 이루었고, 위쪽의 거대 구성집단도 우측의 ‘신학-종교-역사’,中间的의 ‘호응-정부-붕괴-사태’, 좌측의 ‘학생-운동-3·1’ 등 다중심적 경향을 보였다.

흥미로운 점은 제1기에서 보이는 ‘운동’의 네트워크가 제2기에 들어와서 큰 변화를 보인다는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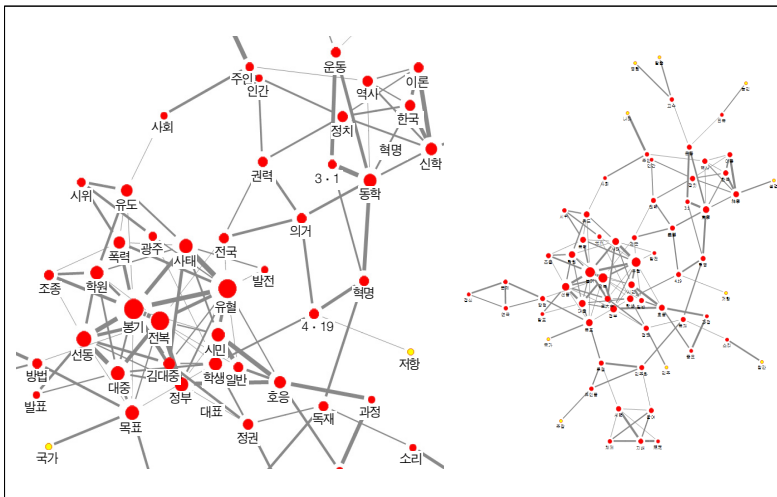


〈그림 13〉 공기어 ‘운동’ 주변의 네트워크(1975~1987)

* ‘운동’이 나타나 있지 않은 연도(1977년, 1978년, 1983년, 1984년)는 제외하였다. 1981년 (*)은 ‘운동’이 없어도 ‘붕괴’가 있어서 논지 전개에 편의상 포함시켰다.

1975~1987년의 연도별 네트워크 지도에서 '운동'과 관련된 부분만 뽑아 보면 앞의 <그림 13>과 같다. 여기에서 잘 드러나듯이 '운동'은 1985년 이전까지는 3·1이나 4·19, 동학, 민족 등 역사적·회고적 사건과 결합되다가 제3기의 시작인 1985년부터는 크게 바뀌어 '연합, 민주, 협의회, 통일, 문화, 실천' 등 당면 현실의 개혁을 지향하는 단어들과 결합하였다.

여기에서 더욱 주목할 지점은 제2기이다. 다음의 <그림 14>는 제2기의 첫 해인 1980년의 네트워크 지도 중 거대 구성집단만 제시한 것으로, 오른쪽이 그 집단의 전체 모습이며 왼쪽은 그중에서 중심부를 확대한 것이다.



<그림 14> 1980년의 공기어 네트워크

이 확대 부분의 오른쪽 위에는 이미 <그림 13>에서 제시한 '운동'의 네트워크가 있다. 인접 공기어를 보면 대체로 '역사적·회고적' 결합 관계를 가지고 있음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다. 그런데 지금 논의에서는 왼쪽 아래 부분이 중요하다. 크고 굵게 연결된 노드만 언급해도 '봉기-전복-유혈-사태-선동-대중' 등을 꼽을 수 있다. 이 계열의 단어는 그 이전의 '운동' 및 그 연결

단어와는 사뭇 다르다. 이런 네트워크는 그 이전에도 그 직후에도 보이지 않는다. 이 단어들은 어디에서 왔으며, 왜 출현했을까.

주지하듯이 이 단어들은 1980년 5월에 발생한 광주민중항쟁과 관련된 것이다. 〈그림 13〉과 〈그림 14〉를 면밀하게 관찰하면 그 이전에는 볼 수 없었던 단어들의 계열이 갑자기 기존의 의미 네트워크 공간에 솟아오르면서 이전의 연결집단을 위와 아래로 밀어낸 듯하다. 말하자면 ‘운동’으로 의미화되기 이전인, ‘사건’으로서의 광주항쟁이 기존의 의미공간에 출현하여 ‘민중’의 네트워크를 교란시켰다고 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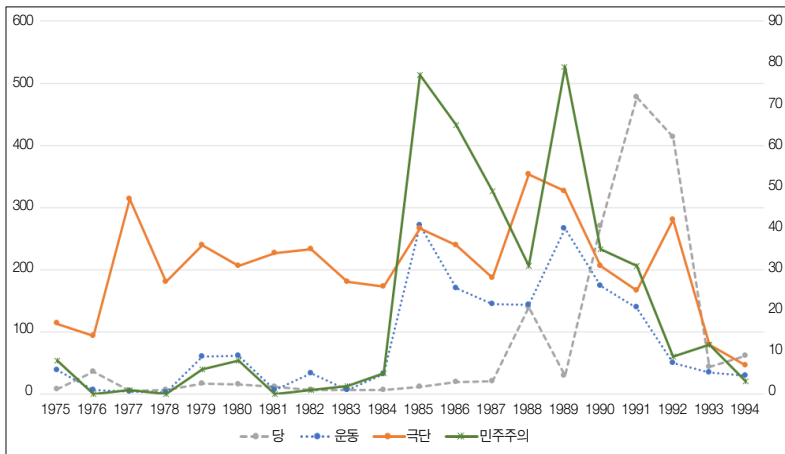
그렇지만 이렇게 솟아오른 단어들은 이듬해에 갑자기 사라졌다. 1981년의 네트워크 지도에 ‘붕기’만을 흔적으로 남겼다. 이 사건은 ‘운동’의 네트워크에도 별다른 변화를 주지 못했다. 1980년에 그 ‘사건’을 생성시킨 힘은 사라졌을까. 아니, 잠깐 잠복한 듯하다. 앞에서 설명한 바대로 1985년부터 삼민투 조직과 광주항쟁의 의미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때문이다. 이때부터 ‘운동’의 네트워크도 확연히 달라졌음은 이미 설명한 바와 같다. 1985년에는 대학생들의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5. 23), 검찰의 삼민투 간부 구속(7월), 「깃발」 등 대학가 유인물에 대한 검찰 수사 발표(8월)가 긴밀하게 전개되었다. 대학생들이 해방과 한국전쟁 후 대한민국의 혈맹으로 인식되어 온 미국을 제국주의로 적대시하는 행위는 한국사회에 커다란 충격을 주었다. 여기에는 정부의 광주민중항쟁 탄압에 미국이 연루되어 있었다고 보는 지식인, 대학생들의 불신이 깔려 있었다. 1985년에 이러한 움직임이 본격화된 이유는, 1985년 2·12 총선에서 신민당이 크게 승리하여 제1야당으로 부각된 일을 계기로 사회 및 대학가의 민주화운동이 크게 활성화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 절에서 살펴본 내용을 시기 순서대로 재배열해 보면, 1980년에 ‘사건’적 차원에서 발생한 광주민중항쟁이 1980년대 중·후반에 ‘사회운동’ 차원으로 활성화되었고, 이런 운동적 활성화는 다시 1990년 무렵의 민중당 창당 등 ‘제도정치’ 차원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2) 비정치적 · 장기지속적 맥락

앞 절에서 보았듯이 시기별 네트워크 지도를 이용하면 전체 네트워크구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던 양상을 포착할 수 있다. 공기어의 급증이 일어났던 제3기와 제4기의 경우 제2장과 제3장 제1절에서 살펴본 '민중' 및 핵심 공기어 동향만으로도 증가 양상을 어느 정도 살펴볼 수 있지만, 제1기와 제2기에서 '극단'과 '신학'이 두드러지는 부분은 아무래도 낮설다.

혹시 '민중'과 그 공기어의 연도별 동향에서 저조한 분포를 보였던 전반기(제1기와 제2기)에 어떤 주목할 만한 지점은 없을까. 이런 지점이 있다면 그것을 네트워크 지도와 교차 검토하여 유의미한 관찰 지점을 확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런 생각에서 <그림 6>의 영역별 핵심 공기어 중 낮은 빈도에 속하는 두 공기어의 동향을 부각시켜 표현한 것이 <그림 15>이다.



〈그림 15〉 주요 영역별 핵심 공기어의 연도별 빈도

* y축의 좌측 눈금값은 '당'과 '운동'의 동향을, 우측 눈금값은 '극단'과 '민주주의'의 동향을 나타낸다.

〈그림 15〉에서 알 수 있듯이 '공연예술' 영역의 핵심 공기어인 '극단'의 빈

도는 연도별 변화 폭이 적다. 이는 1980년대 후반기에 급증세를 보이는 나머지 핵심 공기어들과 크게 다른 점이다. 다음 <표 8>을 살펴보면 ‘극단’은 영역별 핵심 공기어 4개를 비교할 때, 전반기 10년 중 그 절반인 5개년에서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10년 합계에서도 가장 높았다.

<표 8> 제1~2기 핵심 공기어의 연도별 빈도 동향(단위: 개)

연도	극단	당	민주주의	운동	합계
1975	17	8	8	39	72
1976	14	36	0	6	56
1977	47	5	1	4	57
1978	27	7	0	2	36
1979	36	17	6	60	119
1980	31	16	8	62	117
1981	34	12	0	7	53
1982	35	6	1	33	75
1983	27	7	2	7	43
1984	26	7	5	32	71
합계	294	121	31	252	699

『동아일보』에서 이 ‘극단’은 대다수가 “극단 「민중극장」”의 형태로 사용되었다. 그 전후에는 이 극단이 공연하는 작품 소개와 광고 등이 이어졌다. 대부분 이처럼 한정된 용례로 사용되었으므로 ‘극단-민중-극장’ 간의 응집력이 높게 나타났고, 이런 용례가 ‘운동’ 등의 공기어가 급증하기 이전에는 빈도 면에서 상대적 우위를 가졌던 것이다.

민중극장은 1963년 1월에 창단된 동인제(同人制) 극단이다.³¹⁾ 이 극단의

31) 한국 연극사 연구에서는 1960년을 한국 연극이 ‘직업적 기성 연극’에서 ‘비직업적 동인제 극단’ 활동으로 변화한 분수령으로 보고 있다. 이들은 기성 극단의 공연을, ‘기술적으로는 성공하였지만 인간의 내적 혁명이나 인간과 사회를 깨우치는 연극은 아니다’라고 비판하면

중심인물들은 해외 유학과 출신으로 이미 대학에 자리잡은 자들이 많았으며, 프랑스 희극의 소개와 풍자적 희극·실험극 등을 선보여 연극계에 활기를 불어넣었다. 극단 이름을 '민중'으로 한 것은, '당시 연극이 소수 애호가만을 대상으로 하는 데 반발하여 보다 넓은 지식층 대중에게 다가서기 위함'이었다. 이 단체는 '민중'의 논의가 1970년대 이후 정치성을 띠면서 운동권 연극 단체로 오해받기도 했다.³²⁾

이런 점을 염두에 둘 때 1970년대 후반 이후 '극단'과 '극장'은 여타 주요 영역의 그것보다 사회적 영향력이나 운동성 측면에서 미약했다고 말할 수 있다. 공연예술 영역의 핵심 공기어 '극단'의 동향이 실은 '민중극장'이라는 일개 연극단체의 활동에 크게 좌우되었다는 사실은, 개념의 사회적 영향력과 운동에 관심을 가지는 독자라면 다소 실망스러울 수 있다. 나아가 그러한 '편향'을 속아 내지 못하는 점을 들어 네트워크분석 방법의 한계를 거론할 수도 있다.

확실히 공기어 '극단'을 중심으로 하는 이런 단어들은 비정치적·문화적 용례에 해당한다. 그 사회적·정치적 영향력 면에서도 '운동'을 비롯한 다른 핵심 공기어들의 동향이나 용례와는 차이가 있다. 그러므로 후반기의 정세 변화에도 크게 좌우되지 않고 빈도가 일정한 지속성을 보이는 것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이런 용례는 과연 '민중'의 논의 맥락에서 부차적인 것일까. 앞에서 설명하였듯이 비록 정치적으로는 온건한 형태였지만 '민중극장'의 창단 취지로 보아 이들도 1960년대 맥락에서 연극의 대중화를 지향하였다. 연극계의 세대 교체와 대중화, 연극에 대한 혁신 지향 등도 '민중'의 다양한 논의 맥락 안에 놓일 수 있다. 이 점에 대한 심도 있는 탐구를 위해 우리는 관찰

서 연극계의 세대 교체를 주도했다. 이 중 민중극장은 발기인회에서 "민중과 더불어 호흡할 수 있는 연극"을 모색하고 "기성 극계(劇界)의 고식적인 자세"를 거부하겠다고 선언하였다(呂石基, 2010(1975), 「현대연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문화사대계』(전자책 <http://www.dbpia.co.kr/Article/2744832>)).

32) 「민중극장(Minjung Theatre Company, 民衆劇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8109&cid=46664&categoryId=46664>.

범위를 1950년대, 1960년대, 나아가 그들이 유학했던 유럽의 문화적 동향까지 살펴보아야 할 수도 있다.

이런 접근은 ‘공연예술’ 영역에만 국한되지 않는다. ‘사회운동’ 영역의 핵심 공기어인 ‘운동’도 제1기와 제2기에는 ‘3·1’과 ‘4·19’, ‘동학’, ‘민족’ 등과 연결되었음을 이미 살펴보았다. 이 단어들은 ‘극단’의 경우와는 달리 민족운동·사회운동을 지시하고는 있으나, 후반기의 ‘운동’에 연결된 단어들에 비해서는 다분히 역사적·회고적이다. 이는 특히 제3기의 ‘운동’이 ‘탄압’, ‘연합’, ‘협의회’, ‘민주’, ‘문화’ 등 긴박성과 현장성을 띤 단어들과 긴밀히 연결되는 것과 커다란 차이가 있다.

두 시기의 단어가 사용 맥락과 지시 대상에서 차이를 가지면서도 동일하게 ‘운동’으로 표기된다면, 이 사태를 직시하면서 어느 한쪽을 쉽게 배제하지 않고 그 논의 맥락을 탐구하는 것이 개념사 연구의 본령은 아닐까. 마찬가지로 이런 태도는 앞에서 설명한 ‘민중극장’의 비정치적·문화적 용례에 대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후반기의 역동적 흐름을 염두에 둘 때, 전반기 공기어들의 동향은 내부의 사소한 차이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역사화·일상화·상식화된 논의 맥락을 표현한다는 점에서 대동소이한 함의를 가진다. 그것은 1970~1980년대 민중 개념의 정치적 논의에 가려진, 그러나 엄연히 당대 민중론을 구성하였던 비정치적·문화적 논의의 갈래였다는 사실이다.

5. 맺음말

이 글은 1980년대 한국사회에서 사용된 ‘민중’이라는 단어의 논의 맥락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동아일보』 20년(1975~1994)의 기사를 ‘민중’ 공기어 네트워크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우선 기초적인 자료를 마련하기 위하여 『동아일보』 자료를 ‘민중’으로 검색하여, 6,922개 기사에 사용된 ‘민중’ 용례 1만 2,828개와 ‘민중’ 공기어 1만

4,983종 11만 8,676개를 획득하였다. 이들의 연도별 분포는 1984년 이전의 낮은 단계와 1985년 이후의 높은 단계로 양분되었다. 특히 1985년에 '민중'이 급증한 데에는 그해에 발생한 '서울 미문화원 점거·농성 사건'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민중'의 고빈도 추세가 1991년까지 유지된 것은 민중당 창당이라는 정치적 요인이 작용한 결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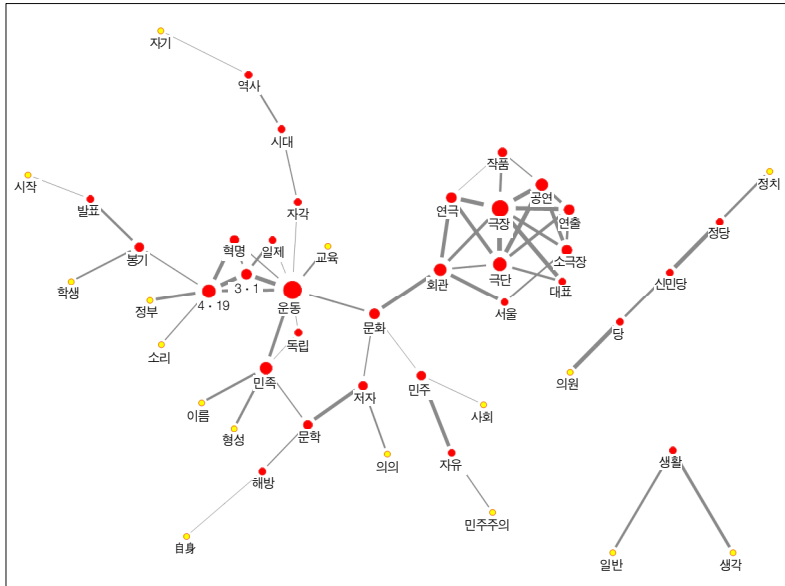
이상에서 획득한 기초 자료와 배경 인식을 토대로 '민중' 공기어 네트워크 분석을 진행하였다. 먼저 전체적인 네트워크구조를 도출하였다. 그 결과 '민중'의 논의 맥락은 크게 '사회운동', '제도정치', '변혁 이론', '공연예술'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다음으로 5년 단위로 논의 맥락의 시기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첫째, '민중'의 급증과 관련하여 1980년에 일어난 광주민중항쟁이라는 '사건'이 1980년대 후반에 '사회운동'으로 이어지고, 또 이러한 '사회운동'이 1990년대 전반에는 민중당 설립이라는 '제도정치'로 연결되었다.

둘째, '사회운동' 및 '제도정치' 영역과 달리 '공연예술' 영역의 핵심 공기어인 '극단'의 동향은 정치·운동 정세에 별다른 영향을 받지 않고 장기 지속하였다. 이러한 흐름은 1980년대 '민중'이 정치화하기 이전부터 존재했고 그후의 정치화 경향 아래에서도 존속했던, 일상적·문화적 논의라는 점에서 주목할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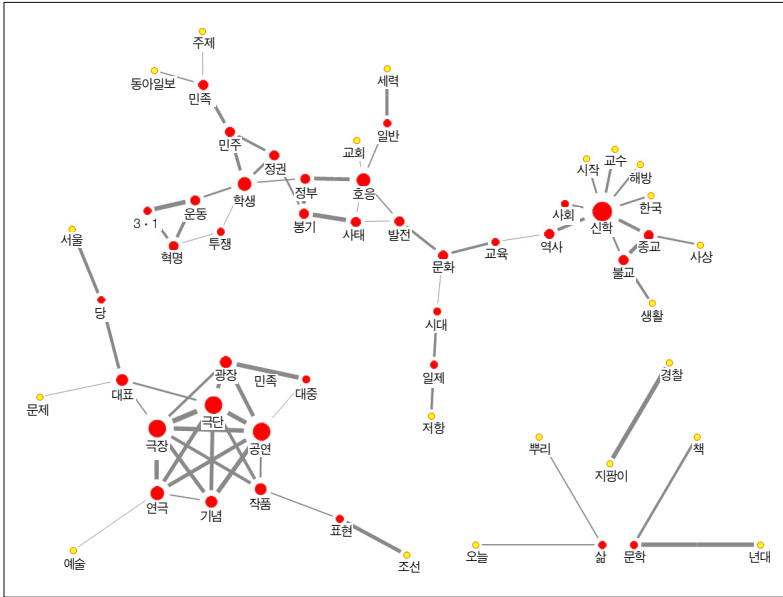
접수일(2016. 11. 14), 심사 및 수정일(1차 2016. 11. 29, 2차 2016. 12. 9), 게재확정일(2016. 12. 9)

〈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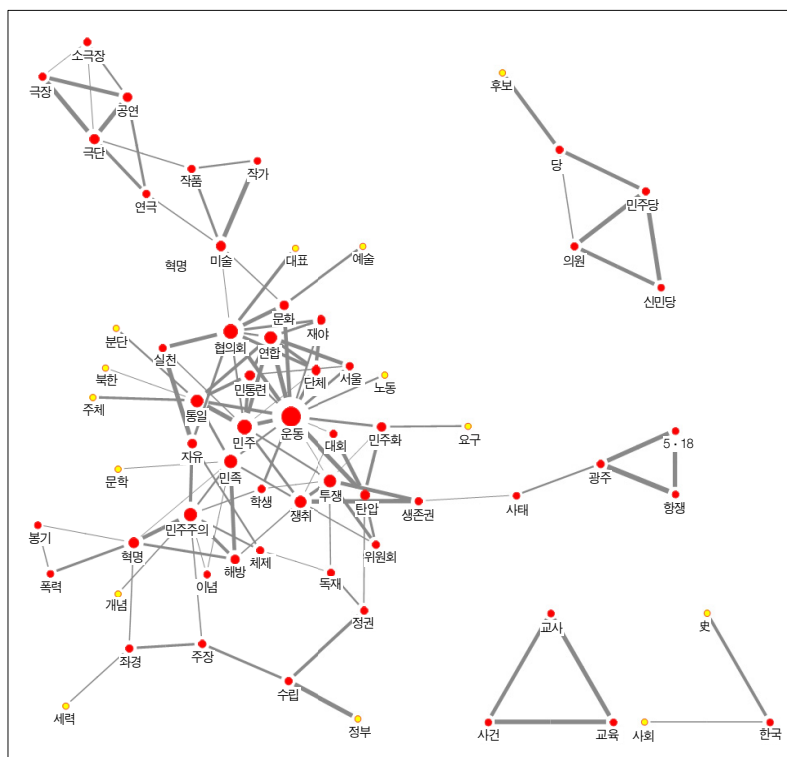


〈그림 9〉 제17(1975~197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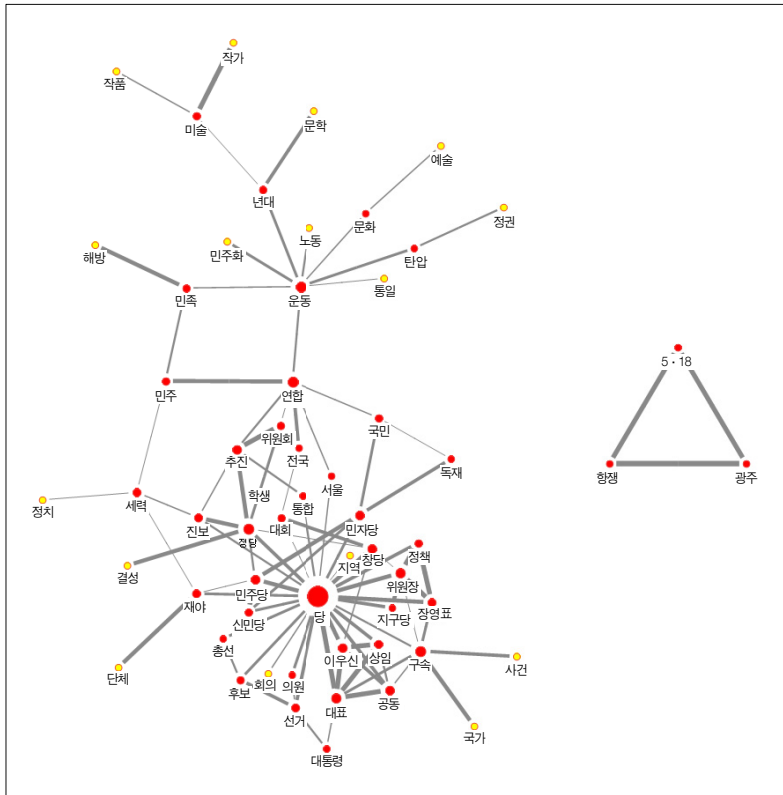
* 본문에 수록된 〈그림 9~12〉의 확대도이다.



〈그림 10〉 제27(1980~1984)



〈그림 11〉 제37기(1985~1989)



〈그림 12〉 제47호(1990~1994)

참고문헌

1. 단행본

- 나인호, 2011, 『개념사란 무엇인가 : 역사와 언어의 새로운 만남』, 역사비평사.
- 사이람,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분석 : 기본 과정』(교육용 자료집).
- 사이람, 『NetMiner를 이용한 소셜 네트워크분석 : 2모드 네트워크분석 과정』(교육용 자료집).
- 서울대학교 60년사 편찬위원회 편, 2006, 『서울대학교 60년사』, 서울대학교.
- 이남희(2015), 『민중 만들기 : 한국의 민주화운동과 재현의 정치학』, 유리·이경희 역, 후마니타스.

2. 논문

- 김민호, 1988, 「80년대 학생운동의 전개과정」, 『역사비평』 제3호, 93~118쪽.
- 김용학, 2015, 「한국 대중가요의 의미 연결망 : 196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의 변화를 중심으로」, 『대중서사연구』 제21권 제1호, 145~171쪽.
- 呂石基, 2010(1975), 「현대연극」,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원 편, 『한국현대문화사대계』(전자책 <http://www.dbpia.co.kr/Article/2744832>).
- 이세영, 2006, 「'민중' 개념의 계보학」, 김경일·김동춘·김정인 외, 『우리 안의 보편성 : 학문 주체화의 새로운 모색』, 한울, 299~391쪽.
- 장상철, 2007, 「1970년대 '민중' 개념의 재등장 : 사회과학계와 민중문학, 민중신학에서의 논의」, 『경제와 사회』 제74호(여름호), 114~138쪽.
- 허수, 2010a, 「식민지기 '집합적 주체'에 관한 개념사적 접근 : 『동아일보』 기사제목 분석을 중심으로」, 『역사문제연구』 제23호, 133~193쪽.
- 허수, 2010b, 「1920~30년대 식민지 지식인의 '대중' 인식」, 『역사와 현실』 제77호, 321~384쪽.
- 허수, 2014, 「어휘 연결망을 통해 본 '제국'의 의미 : '제국주의'와 '제국'을 중심으로」, 『대동문화연구』 제87집, 501~561쪽.

3. 인터넷 사이트

- 「네이버뉴스라이브러리」 newslibrary.naver.com.
- 「말뭉치」, 『위키백과』 <https://ko.wikipedia.org/wiki/%EB%A7%90%EB%AD%89%EC%B9%98>.

「민중극장(Minjung Theatre Company, 民衆劇場)」, 『한국민족문화대백과』 <http://terms.naver.com/entry.nhn?docId=2458109&cid=46664&categoryId=46664>.

Abstract

Discussion of *Minjung* by Citizens of Modern Korean Society

—A Network Analysis of Co-Occurring Words,
Using the *Donga Ilbo* Corpus 1975-1994—

Soo Hur*

■ **Keywords** : network of co-occurring words, citizens of modern Korean society,
minjung, *Donga Ilbo*

This network analysis of words co-occurring with *minjung* has two outcomes. First, the general structure of the concept was determined, identifying key contexts in which *minjung* was used, by studying the examples from the *Donga Ilbo*. A network map of co-occurring words was developed by converting 110,000 cases of correlation between *minjung* and its co-occurring words into correlations among the co-occurring words. This shows that *minjung* usage can be analysed into four distinct types: social movements, institutional politics, revolutionary theory, and the performing arts.

Second,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of the concept and the way in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Korean History, Seoul National University

which its meaning varies with time, using the same method. By dividing the 20 years from 1975 to 1994 into four 5-year periods, it can be seen that the frequency of the term increased in the latter periods. Also, in the third period (1985-1989), *minjung* was mainly used within the context of social movements, whereas in the fourth period (1990-1994), the concept was mostly discussed within the context of institutional politics.

